

‘제값 받는 농업’ 실현 도, 5488억원 투입 지원

간편형 스마트 팜 ·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벼값 폭락 대책 · 최저가 보장제 등 중점 추진

전북도가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간편형 스마트 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벼값 폭락 대책, 최저가 보장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삼락농정의 성공은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보고 올해는 74개 사업에 5,488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전북도는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앙단위 평가에서 농산시책평가와 대한민국 명품쌀평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들녘경영체 육성, 발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등 중앙공모사업 9개 사업에 274억원(국비 106억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2016년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분야 16개 사업 140억원, 농산물 유통분야 14개 사업 232억원, 식

량산업 및 경영안정 분야 14개 사업 2,977억원, 임업산업분야 23개 사업 1,340억원, 로컬푸드 분야 7개 사업 799억원 등 5개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증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간편형 스마트 팜, 벼값 폭락 대책비,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농산물 최저가 보장사업 등 4개 사업 172억원이다. 간편형 스마트 팜 사업은 농업초보자도 스마트팜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와 자동 온·습도, 환기, 지습을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ha(84동) 1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0평 규모의 소규모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벼 값 폭락 대책비는 지난해 3년 연속 폭락 등 벼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이며 2월에 15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은 친환경농

산물의 소비 확대 등 판매처 다각화를 위해 기존 농산물 매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소를 개설키로 했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인 최저가보장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 한도로 품목별 재배면적 1,000㎡ ~ 1만㎡규모로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대해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해에 가을무와 가을배추에 최저가보장사업을 진행했으며, 가을무와 배추가격이 평년가격을 웃돌아 시행되지는 못했다.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2개 대상품목을 추천받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후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북농업인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중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위치한 김제 심창초교는 3년전부터 할머니 학생들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신입생 예비소집에 50대와 60대 할머니 학생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입학한 할머니 학생들.

“60평생 살면서 못배운 한 풀고과”

▶ “우리 학교에 특별한 학생들이”... 배움의길 놓치지 않는 할머니들
 김제 심창초에 할머니 재학생 8명 이어 올해 2명 추가 입학
 고창 봉암초도 2명 재학... 경기도에서 온 60대 여성도 찾아와

도내 초등학교들이 이달들어 신입생 예비소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2곳에서 할머니들이 예비소집에 참여, 3월 입학예정 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위치한 김제 심창초교(교장 최명호)는 지난 10일 신입생 예비소집에 60대와 50대 여학생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이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미 이 학교 2학년에 3명의 할머니가, 3학년에는 5명의 할머니 학생이 재학 중인데 고령자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년 고령자 입학생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생 41명의 작은 학교인 고창 봉암초등학교에도 3월 할머니 학생 2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올해 60살인 이모 씨도 인터넷을 통해 봉암초등학교가 고령자 입학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주변에 집까지 구했다. 김제 심창초교가 할머니 학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2015년 1월 학교 인근 삼치마을 이장이 최명호 교장에게 할머니들도 입학할 수 있는냐고 문의를 해온 것. 69살 박모 씨, 65살 정모 씨 등이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 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 당황한 최 교장은 김제교육지원청과 진흥면사무소에 문의를 해 취학 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교사들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까지 소집해 의견을 듣고 입학할 허가를 했다. 그 해 60대 다섯 할머니들이 심창초교 학생이 됐다. 삼치마을 등 동네주민들은 할머니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가방을 전달하면서 응원을 했다. 이 할머니들의 답인 선생님은 조심히 교사가 나섰다. 학교에선 할머니들이 손주뻘 되는 학생들과 잘 융화되도록 신경을 썼다. 할머니들은 못 배운 한을 풀듯이 문자 학습에 집중했다. 수업시간에는 물론 쉬는 시간에도

읽고 쓰기 연습을 할 정도. 할머니 학생들의 동료 초등학생에 대한 사랑도 따듯하다. 과일과 간식을 가져와 학생들에게 먹이고 생일파티를 챙겨주는 것은 보통. 3학년 박금옥(69)씨는 지난 12월 방학식 때 쌍둥이 학생이 그동안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없는 걸 알고 이들을 택시에 태우고 김제 시내까지 나가 한복을 직접 맞춰줬다. 3월 2학년에는 올라가는 소정순(68)씨는 “학교 다니는 것이 아주 즐겁다. 학교에 첫 발걸음을 댈 때는 고민도 많았는데 공부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중학교까지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 봉암초교에선 박희순, 한영자씨 등 70대 할머니들이 올해 2학년에 올라간다. 지난 11일 신입생 예비소집 때는 입소문이 나면서 60대 할머니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모 씨가 입학원서를 냈다. 최석진 교장은 “현재 60~70대 여성은 가난과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은 분들이 많다. 초등학교가 이 분들에게 적극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지역격차 심화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해야”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송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는데,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 개정안에 있어 제대로 공론화 과정도, 비수도권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 마련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 육성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16면 - 무주군 새해 군정운영 방향

8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합성을 **태권도원**으로!

73억 세계인들의
 열기를 **무주**로!

2017 MUJU WORLD CHAMPIONSHIPS TAEKWONDO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기간 : 2017년 6월 22일~30일 ■ 장소 : 태권도원 **muju**